

제11강 국가와 법 IV

(1교시)

▶ 1968년을 기점으로 정치철학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. 1968년 전후에 이르러서야 자유주의와 맑시즘의 양분 구도가 와해되고 탈근대적인 다양한 사유 실험들이 등장하게 된다. 특히 구조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후기구조주의 계열에서 영향력 있는 사유들이 전개된다.

▶ 클라스트르는 ‘국가에 대항하는 사회’라는 개념을 제시해 현대 정치학에 중요한 단서를 마련해 주었다. 원시사회는 국가를 이루지 못한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, 즉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주장이다.

▶ 루이 알튀세는 ‘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’ 개념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의 ‘주체화’ 문제를 분석하는데 결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다.

‘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’란 한 인간을 일정한 ‘주체’로서 형성시키는 각종 장치들을 뜻한다. (학교, 군대, 병원, 공장, 법원, 사무실, 교회나 절, ... 등) 어떻게 이런 장치들에 대항하면서 진정으로 능동적인 주체가 될 것인가를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.

▶ 푸코는 서구 근대를 만들어 온 ‘지식-권력’ 장치들을 분석해 줌으로써 탈근대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.

푸코는 19세기 이래 형성되어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삶의 틀을 만들어낸 담론들 즉 정신의학, 정신병리학, 정신분석학 같은 의학적 담론들과 형법학, 범죄학 등 법학적 담론들, 법의학, 그리고 인구학, 통계학, 위생학, 건축학 같은 수많은 담론들이 순수 학문들, 순수 지식들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지식-권력들이라고 말한다. 푸코는 이 지식-권력들의 역사를 세밀하게 파헤치면서 이 지식-권력들이 어떻게 지배의 장치들을 만들어내 왔는가를 폭로한다.

▶ 들뢰즈와 가타리는 ‘노마디즘’을 통해서 새로운 사유 실험들을 전개했다.

▶ 네그리와 하트는 맑시즘과 노마디즘을 결합해 커뮤니티즘의 새로운 향방을 모색했다.